



입당송 시편 96(95),1,6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이.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권능과
영화가 그분 성소에 있네.

제1독서 느헤미야기 8,2-4 7.5-6.8-10

화답송 시편 19(18),8.9.10.15 (© 요한 6,63c 참조)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 (후렴) 주님, 당신 말씀 - 은 영이며 생명이시 옵니 다.
1.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2.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3.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4.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이신 주님, 제 입으로 드리는
말씀, 제 마음속 생각,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

제2독서 코린토 1서 12,12-30

복음 환호송 루카 4,18

◎ 알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복음 루카 1,1-4; 4,14-21

영성체송 시편 34(33),6 참조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사진 : 윤용선 바오로 신부(범일성당 주임)

1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참된 형제애)

종교 차별과 박해로 고통받는 모든 이가, 인류 가족 안의 형제자매로서 지니는 고유한 권리와 존엄을 인정받도록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2021년 지난해 부산교구는 ‘신앙과 말씀의 해’를 보내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우들 삶 깊숙이 녹아들도록 힘썼습니다. 특히, 많은 교우께서 주보에 실린 ‘주일의 성구 암송하고 실천하기’에 참여해주셨는데요, 이 지면을 통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2022년 ‘성체와 말씀의 해’를 맞아 주보에 실고 있는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 7일 부산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강론에서 손삼석 요셉 주교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사제는 기업가가 아니라,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제는 본당과 교회 단체를 잘 관리하고 운영해 실적을 내는 기업가가 아니라, 주님의 백성에게 다가가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주님의 몸인 성체를 나누어 줌

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을 주님께로 이끄는 목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에즈라 사제는 하느님 앞에 모여 온 회중에게 율법서를 읽어주었는데 회중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느헤 8.2,3 참조) 또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카 4.18-19)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모든 사제는 미사 중에 공적으로 하느님 말씀을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며 강론을 통해 그 말씀을 교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주

고 삶에 적용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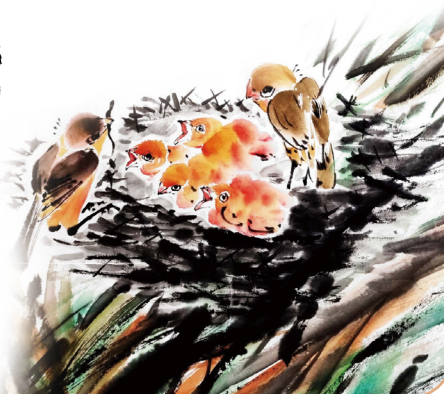
이번 주일은 새신부님들을 비롯하며 많은 신부님들께서 새로운 사목지로 이동하시고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카드를 섞어놓으시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따라가기 쉬운 세상의 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순서를 따라 살 것 즉, 가난한 이들, 잡혀간 이들, 눈먼 이들, 억압받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님의 구원을 전하길 당부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주님 말씀으로 성장하여 사회의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구원을 전하길 바랍니다.

윤기성
미카엘 신부
전산홍보국장



우리의
공동의 집을
치유하려면
먼저 인간의 마음이
치유 되어야 한다

캘리그래피, 김태자 베르베두아 (양산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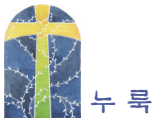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 MHz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재) 16:50

1.24(월)~25(화)
윤기성 신부(전산홍보국장)
1.26(수)~29(토)
안병영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1.25(화) 13:00~14:00
1일 DJ : 김상준 신부(남천제1보좌)
부산의 맛집탐방 <오데가교?>
출연 : 임정철 신부(남천 제2보좌)

사랑이 있는 세상
월~금 11:00~12:00
진행 : 조운진 비비안나
1.26(수) 하늘타리
<시노달리타스 2편 : 평신도>
출연 : 평현회장 최재석, 여성연합회장
배미자, 레지아단장 박용혁



영적인 아스피린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왜 우리에게 고통을 요구하실까? 때로는 고통을 넘어 완전한 버림받음까지 원하실까? 살다 보면 누구나 큰 상실의 고통을 겪는다. 한 여성이 진료실에 찾아와 “선생님,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져서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아스피린 좀 주세요.”라고 말했다. 사연인즉, 고속도로상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운전자를 발견한 그녀의 남편이 차를 세우고 부상자를 돕다가 또다른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남편이 이차 사고사를 당한 것이었다.

이 충격적인 고통을 다스려줄 정신적 진통제라. 아스피린과 같은 약이 신체 증상은 완화시켜 줄 수 있지만 어떻게 정신적 고통까지 없애 줄 수 있겠는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항우울제 처방을 생각했지만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은 엄청

난 고통은 약 처방만으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었다. 깊고 깊은 마음 앓이의 시간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녀가 울부짖고 통곡하는 대로 받아주기만 했다.

한 화가는, 아침에 출근할 때 다정하게 인사하던 딸이 오후에 갑자기 사고로 하늘나라로 갔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다. 이보다 더 큰 충격이 또 있을까? 애써 키운 자식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이다. 성실히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도 이런 허망한 일을 당하면 하느님을 원망하고 성당에 나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실에는 차갑고 쓰디쓴 고통만 따를까...

그런 현실이 너무도 싫어 그 화가는 멀리 떠나갔다. 자식에 대한 죄책감을 씻어보고자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신발이 누더기가 될 때까지 걷고 또 걸었다. 긴 시간 방황 끝에 마음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빛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영혼의 허물을 하나씩 들씩 걷어내면서 묵상 속에 비친 산티아고의 모습을 여러 형상의 작품으로 담아내었다.

자식을 잃은 상황은 변한 게 없고 고통스런 기억이 완전히 지워진 것도 아니지만 화가는 차츰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얻으며 자기 자신 너머를 바라보고, 또 주어진 삶 자체를 받아들이고 사랑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되니 자식을 잃은 크나큰 고통은 줄어들 수 있었고 그의 그림은 창의성으로 빛났다.

삶에서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고통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고자 함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을 정결케 하여 진정한 사랑의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함을 믿는다.

■ 윤 경 일 아오스딩

좌동성당·의료인 ykikhk@hanmail.net



공동의 집
들보기

공공재인 기후

- 23. 기후는 모든 이의, 모든 이를 위한 공공재입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기후는 인간 삶의 많은 필수 조건들과 관련되어 있는 복잡계입니다.
- 25. 기후 변화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환경, 사회, 경제, 정치, 재화 분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수십 년 안에 아마도 개발 도상국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 26. 더 많은 자원과 경제적 정치적 힘을 지닌 이들은 대부

분 문제를 호도하거나 그 증상들을 감추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일부 부정적 영향만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증상들은 현재의 생산 방식과 소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보여 줍니다.

『찬미받으소서』 23항~26항 발췌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찬미받으소서』 23항~26항 영상 보기

낭독 : 청년연합회장 정수빈 언나



자원봉사나 생태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휴가를 계획하고 실천하기

새 사제 다짐·감사 인사

지난 2022년 1월 7일(금) 하느님의 은총 속에 우리 교구에 4명의 새 사제가 탄생하였습니다. 교구민들과 많은 은인들에 대한 새 사제들의 다짐과 감사 인사를 게재합니다.



김성중 베드로 신부

“섬기러 왔고, 목숨을 바치러 왔다.”
(마르 1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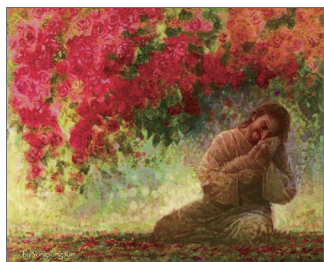
신학교에 입학할 때,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제’가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입학 원서의 각오 한마디를 적는 란에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적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작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숨을 내놓겠다는 ‘겸손과 사랑’이 하느님과 교회를 향한 저의 첫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자주 잊고 살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서품 전에 이 첫 마음을 되찾아주셨습니다. 특별한 누군가가 되고 싶어 선택한 사제직이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자 되어 하느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하는 사제의 삶을 ‘겸손과 사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장병훈 루 카 신부

“나의 연인은 나의 것 나는 그의 것”
(아가 2,16)

성공한 삶은 어떤 것인가를 되짚어 봅니다. 요즘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큰 명예나 큰돈을 얻는 것이 아닐까요? 타인에게 평평거릴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힘 말입니다. 그 사회의 이념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삶을 배웠을 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살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기에 배우고 느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멀리 떨어지지도, 완전히 동화되지도 않고 살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랑을 실천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위와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라는 수평적인 선도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조금씩 노력하는 저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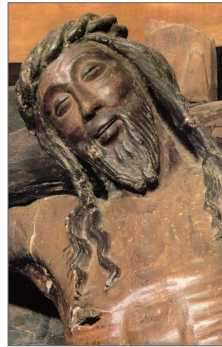


조현우 블라시오 신부

“말할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2,24)



먼저 부족하고 흠 많은 저를 당신의 도구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저의 서품 성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 받은 사랑과 자비를 제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데 투신할 수 있도록 늘 저를 다그칩니다. 사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 보시기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상본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아마도 죽어가는 그 순간 당신께서 맺으신 열매들을 생각하시며 미소 짓지 않으셨을까 상상하곤 합니다. 먼 훗날 사제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저도 예수님처럼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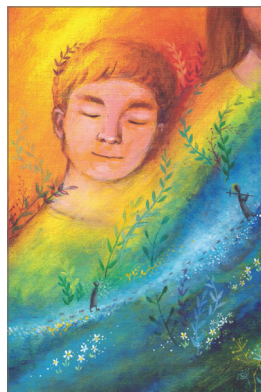


이상경 베드로 신부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2티모 1,6)



하느님의 무한한 은총과 교구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 속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하느님의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저는 이 성구를 통해 제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알아가기 위해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 끊임없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성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 이 말씀을 듣고 저의 능력으로만 사제의 길을 준비할 수도, 걸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왔던 지난날들을 돌아보니 하느님께서 저를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고, 제가 받았던 것들은 결국 하느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제의 삶 안에서 제가 받은 것들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사목 활동 안에서 제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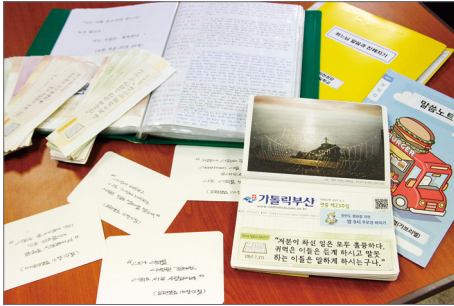
유튜브 <가톨릭라이프부산>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신자들

‘성경이 하루를 여는 열쇠가 되고 하루를 마감하는 자물쇠가 되도록 합니다.’

- 2022년 ‘성체와 말씀의 해’ 사목지침 중



‘주일의 성구 암송하고 실천하기’를 제시했다. 이에 『가톨릭부산』 주보는 하느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신앙인의 삶을 독려하고자 ‘성경 구절 따라 쓰기’ 코너를 기획했다. 한 해 동안 매주 성경 구절을 따라 쓰고, 1년간 모아 제출한 신자 800여 명이 지난 연말

교구장 주교의 축복장과 선물을 받는 기쁨을 누렸다.

2022년 ‘성체와 말씀의 해’에도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 ‘성경 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코너를 진행한다. 교회 전례력에 따라 1년간 작성한 성구를 모아서 제출한 신자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릴 계획이다.

지난 2021년 사목지침에서 개인과 가정이 하느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실천 지침의 하나로



꾸르실료 제53차 정기총회

교구 꾸르실료(지도 : 김경옥 신부)는 최근 제53차 정기총회를 통해 제19대 주간으로 이종인 디오니시오(당감성당) 씨를 선출했다. 우리 교구는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의장 교구이므로 이 주간은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회장을 겸임한다.

제15회 우리성가공모전 우수상 수상



온천성당 주일학교, 신앙 일기 제작해...



온천성당 주일학교(담당 : 강호성 신부)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자 교리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신앙 일기』를 통해 신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신앙 일기』는 그날 전례와 관련된 숫자를 활용한 스도쿠, 대림실천표, 색칠 놀이, 교리상식 등을 담아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교리서이다. 초등부 교무 이화니 안나 씨는 “우리 친구들이 신앙 일기를 통해 하느님을 잃지 않고 마음속에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한 제15회 우리성가공모전에서 김종완 라파엘(연양성야고보성당) 씨의 성가 ‘오늘도 내일도’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김종완 씨는 “한국 순교자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의 한국교회가 뿌리내렸고, 앞으로도 그분들의 순교와 영성을 기억하며 살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았다.”며 “청년 음악가로서 가톨릭 음악에 기여하고,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루카 4,21)

[나만의 성구]

위의 복음 구절을 따라 쓰거나, 나의 마음에 와닿은 나만의 성구를 적고 암송해 봅시다.

* 1년 간 (2021.11.28.~2022.11.20.) 작성 후 모아서 보내주시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절취선

하늘공원 설 명절 방문 안내

코로나로 인하여 **설 연휴**
1/29(토)~2/2(수) 동안
예약제로 시행합니다. 예약하신
분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모, 가족모, 봉안당 묘역전체)

1. 예약시작일 : 1/17(월) 10:00
하늘공원 홈페이지 참조
(<http://hanul.catb.kr>)

**2. 합동위령미사 봉헌
설날 당일(2/1) 11:00
봉안당 내 성전**
미사예물 접수 : 사무실
(전화접수가능 055-374-8733)

※ 설 합동위령미사예물 및 관리비는
입금 전, 반드시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천주교 용호동 묘지 임시 폐쇄 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용호동 묘지를 임시 폐쇄합니다.
폐쇄기간 : 1/22(토) ~ 2/6(일)

교 구

2022년 성소분과 위원장 연수
· 2.6(일) / 대상 : 각 본당의 성소분과 위원
참여방법 : 성소국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통해 연
수 참여(영상주소는 성소분과 위원장 연락처로
알려드립니다.) / 문의 : 629-8760~2(성소국)

예비신학생 등록 및 입학미사
대상 : 사제성소에 관심이 있는 중1~고2 남학생,
지원자만 / 등록방법 : 성소국 홈페이지(<http://sungso.catb.kr>) 및 교구공문 참조
등록비 : 중등부 2만원, 고등부 5만원
등록가감 : 2,15(화)
예신 입학(개강)미사 : 3.13(일) 소속 본당에서
미사봉헌(인증사진은 각 담임신학생에게 전송)
문의 : 629-8760~2(성소국)

본 당

옥동성당 사무원 구함
서류 :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신부추천서
자격 : PC(한글, 엑셀) 사용 가능자
문의 : (052)261-6011

기관·제 단체·위원회

부산 미바회 후원미사
· 1.28(금) 10:30 / 세계오지선교회 차량지원
· 남천성당 / 문의 : 623-4528(사무실)

평신도선교사회 정기총회
· 2.12(토) 14:00 · 가톨릭신학원 1층
대상 : 신학원 동문 전체 / 문의 : 462-033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사랑의 자선금을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월 10일~1월 16일] 소계 : 980,000원 **모금 누계 : 937,492,334원**

명지셋별Pr. 10,000	강선하 30,000	김재구 30,000
김현승 100,000	김상숙 100,000	박희자 50,000
이순남 500,000	정영아 100,000	김부경 20,000
이순화 40,000		

사용 누계 : 701,667,700원

잔액 : 235,824,634원

※ 지난 모금 내역 및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는 신자분들은
아래 계좌로 참여해 주십시오. 입금 시 성명(본당) 기록. 예) 홍길동(남천)

<입금 계좌> 농협 301-0267-8167-1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p>서울공예사 목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 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야) 631-5006, 631-5007 황인환(가롤로)·김경자(모니카)</p>	<p>조은 모바일 크레인 건설현장의 꽃 이동식 타워크레인(일대/월대) 장비임대 및 현장답사(상담현영) 010-3831-2403 심 현 진 (프란치스코)</p>	<p>성모치과 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원장. 송 치 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 출구 50m</p>	<p>인산죽염 부산지사(동래) 대 표. 김기룡(야고버) 죽염, 유황오리진액, 후두액, 친환경 557-5553 동래대동병원 맞은편, 대리점 취급점 모집</p>
<p>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간, 소화기병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령공단검진 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 소화기내과 원장 :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이), 허정호(루카), 조성락, 한서룡, 이정현, 장형하, 정재원 · 진단방사선과 원장 : 임성업 554-1088 동래시외버스터미널 옆</p>	<p>김병호정형외과 척추, 관절/통증, 재활/도수물리/물리치료 원장(정형외과 전문의). 김 병 호(루카) 752-0020 수영구수영로581, 광안역 4번출구앞(4/5층)</p>	<p>SNU서울비뇨의학과 24시간 요로결석 치료 / 전립선, 요실금 서면 롯데백화점 정문 옆 (도보1분) 714-1725 서울대 출신 원장. 박정민(가브리엘)</p>	<p>동래요양병원 노인성질환/치매/24시간간병/호스피스 행정원장. 강희천(다니엘) 상담문의 557-7011 010-7474-8521 동래구 명륜동 동래메가마트 후문 옆</p>
<p>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포장이사 전문업체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p>		<p>빠른후문약국 개금 백병원 후문 신속, 정확조제, 친절상담 약사. 박종민(갈리스토) 917-6262</p>	

성령쇄신 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집

-수요 치유기도회
· 1,26(수) 13:00~15:00
-금요 밤미사
· 1,28(금) 20:30~22:30
-젊은이 기도회
부산: 매월 2·4주(월) 19:30 전포성당
울산: 매월 1·3주(수) 20:00 대리구 별관

애덕의집(그룹홈) 입소자 모집

대상: 여성시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문의: 464-3909 (시각장애인선교회),
010-2249-5001

오륜대순교자성지 상설고해소 운영

· 주 2회(매주 월, 금) 14:00~15:30
문의: 515-0030

교육·모집·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 1,28(금) 10:00 · 사직대건성당
문의: 582-1774, 010-9081-1743

성분도어버이집(요양원) 조리원 구함

조리원 1명(음식조리 가능하신 분, 자격증 무관)
근무: 2교대(06:00~16:00/09:00~18:00)
문의: 752-2982

무아의 집 어르신 모집

대상: 만 70세 이상 일상생활 가능한신분
1인실 3,4층 모집 / 문의: 010-5955-6185

살레시오미디어북(독서미디어) 1학기 신규모집

초1~2: 책과 함께 놀아요(50분/주1회/필독서 총15권)
초3~6: 인문교양독서(75분/주2회/필독서 총10권)
중1~2: 인문독서(90분/주1회/필독서 총10권)
문의: 622-2431(살레시오영성의집, 남천동)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안내

원서접수: 1,11(화)~2,9(수) / 모집인원: 20명
대상: 상호문화교육 희망자 및 이주배경 청소년
상세 전형 일정 학교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1)432-9241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2,11(금)~19(토)
말씀피정: 2,24(목)~27(일)
문의: 010-3340-0201(형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1만원
·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문의: (02)2274-1843~4, www.cdcc.co.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ec.or.kr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 역사, 평화 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 오름 트레킹
눈꽃산행피정: 1,28~30, 2,6~9, 2,12~14,
2,19~22, 2,26~28, 3,5~7, 3,19~21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성녀예수외테라사 기도학교(GOT)

대상: 주님과 우정어린 기도를 갈망하는 신자
개강: [일반인반] 월요일반 3,14 오전반 10:00,
저녁반 19:30, 수요일반 3,16 오후반 14:00
(매월 2,4주 월, 수 2년과정)
[청년기도학교] 목요일반 3,3 19:30 ZOOM(비대면)
회비: 한 학기당 12만원(부산은행070-01-02-
3339-3 전교가르멜수녀회)
문의: 일반인반 865-7334, 010-5627-7334
청년기도학교 010-2311-3075

예수회센터 동영상 녹화 강의(사건 녹화본)

* 동영상 링크 발송, 1주일 동안 수강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꿈을 통한 영적 치유, 성경대학: 요한복음1,2,3,
나는 믿나이다? 우리는 믿나이다?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기간: 2022.3월~12월 / 문의: (02)828-3600

부산교구

역사 자료 수집 및

기증과 기탁

집중 수집 기간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집 장소

본당, 교구 사무처,
부산교회사연구소

부산교구 관련 자료의 내용

- 1990년 이전 신앙 및 교구 관련 자료
- 교구·본당·단체·기관의 행사와 활동이 담긴 사진
- 교구·본당·단체·기관의 회의록 등 기록 자료
- 그 외 교구 관련 자료
- 집안 소장 고문서

*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발행하고, 기탁을 원하는 자는 일정기간을 정하고, 교구에서 보관한다는 기탁증서를 발행합니다.

<p>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p> <p>부산가톨릭대학교 노인복지보건학과</p> <p>* 초고령사회의 노인복지보건 전문인력 양성 * 국내 유일의 2개 학사학위 동시취득(치매관리보건) * 졸업생 70% 노인복지현장 진출(건보공단, 노인복지관) * 신입생 모집정원: 30명(수시26명 + 정시4명)</p> <p>www.cup.ac.kr asw.cup.ac.kr</p>	<p>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은 메리놀병원</p> <p>전국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심사 '우수'</p> <p>메리놀병원TV 소아청소년과 박상인 과장</p> <p>"배가 자주 오래 아픈 아이, 이것만 기억하자!" 유튜브로 확인해보세요.</p> <p></p> <p> 메리놀병원 대표전화: 465-8801</p>	<p>혼인미사(결혼식) 특화성당</p> <p>토, 일, 공휴일: 11, 13, 15, 17시</p> <p>051.441.3500 catholicwedding.kr</p> <p>스드메 특전 제공(2020.11.~)</p> <p>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p>
--	---	---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길맥흉부외과</p> <p><하지정맥류 중점클리닉> 모카, 고주파, 레이저, 보형수술 원장. 박 동 욱 (안드레아)</p> <p>754-9975~6</p> <p>해운대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센텀임페리얼타워</p>	<p>김용기내과의원</p> <p>[총무동 구. 김동수 내과] 갑상선·당뇨·고혈압·골다공증 원장. 김 용 기 (T. 아퀴나스) 전 부산의대 학생 외 내과전문의 8명</p> <p>상담 및 예약 245-7100</p>	<p>독일보청기</p> <p>동래교차로(수안동) 청력검사, 난청유형별맞춤처방, 정부지원 보조금상담, 교우특별할인, 즉석 A/S 방 (아브라함) 송 (아가다)</p> <p>555-5777</p> <p>동래구 총월대로 229. 수인역 7번출구 앞 2층</p>	<p>한방화장품 상황미인</p> <p>상황버섯 추출물 함유 / 교우 할인 천연한방특허 바디클렌저 / 바디로션 기초화장품 / 기능성화장품</p> <p>758-9115, 010-8557-8153 www.soosul.com 신(프란치스코)</p>	<p>정대수맑은신경과</p> <p>(미카엘) 신경과전문의 의박학사 전)부산대학병원장 치 매·뇌졸 중 신경과 과장 두 통·어지럼증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고혈압·불면 증</p> <p>남천역 3번출구 612-6100</p>
<p>내일N성형외과</p> <p>최수종 (루카) 전.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과장 / 교수 눈, 코, 윤곽, 가슴, 지방성형, 보톡스, 필러, 레이저</p> <p>상담 및 예약 231-8088</p> <p>부산시 서구 보수대로 97(바른병원 2층) / 서구청 옆</p>	<p>동래광안 참사랑요양병원</p> <p>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p> <p>동래: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751-1515 김병희(야베스)</p>	<p>바른성모안과</p> <p>망막(황반변성, 당뇨망막증, 망막혈관폐쇄), 백내장 원장. 최 베드로(한국망막학회 정회원)</p> <p>242-0075</p> <p>서구청 옆 바른병원 3층</p>	<p>우일촌 대연동 구)성남식당 since 1984</p> <p>빈대떡 (이복식빈대떡)</p> <p>전국택배 가능(진공포장) 한 협 (그레고리오)</p> <p>010-9576-1476</p>	<p>세인요양병원</p> <p>노인성질환/재활/암요양 병원장. 오 서 영(마리아)</p> <p>상담문의 501-7500</p> <p>부산 동래구 여고로 5 (사직동)</p>